

buddhanews.com

# 지금 한 찰나 공부하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 25면에서 계속

러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지켜보다가 가는 걸 그냥 중간에서 딱 잡아서 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열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도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애걸 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선 왜 만날, 그게 뭐가 궁금해서 여자를 찾아가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찾아가갈 수 있는 거냐 어느 판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냐 뭐가 틀린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속에 들어가면 남자예요. 여자 속에 들어가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부부지간에 사는 데로 들어가면 부부도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그런데 자기가 재주가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잡은 거예요. 아주 그냥 치도곤을 안긴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막 빌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술이나 축지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쩔 수가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몸을 감춘다거나 이런 것도 말이예요. 축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비행기보다 더... 비행기보다 덜 게 뭐 있습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뭐, 뭐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저 하나의 모습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들 하세요. 하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급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도 맞는 공부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해 놓으셨지만 『화엄경』에도 그렇고 『법화경』에도 그렇고, 보면 그 말 자체에서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요. 뜻으로.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즉 말하자면 함이 없이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아주 무지한 업보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시끄러운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딪고 부딪히고 그냥 모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네 집안을 하나 고치려면 그 과거에 작성해 놓은 서류를 다시 다른 서류로 꾸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앞서 있던 서류가 없어야 그 집안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법원이 여기 법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죽은 세상의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심부름할 땐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될 걸 어떤 어려운 집은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령들에게 빛을 쬐면 그런 뜻이라면 내 마음으로 돈을 만들어서, 큰 바다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데려다가 천도를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돈을 조금 가져온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또 돈이 있어서 좀 넉넉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돈이 빠져도, 요렇게 모아서 갖다 드려도 우리가 살만 하니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다면 그건 더더욱 좋고요. 우리가 살 때에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쌓아 놓고 살면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상원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한 가방을 썼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한 가방을 잃어지고 밤중에 길을 걷는데 말입니다. 어찌했어? 나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해도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가다 보니까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개천을 건너뛰다가 그 살얼음을 밟는 바람에 개천에 발이 쪽 빠지면서 탈신 한 짝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아니예요? 맨발로 가려고 보니까 이 얼음에 살이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얼음에 살이 붙으니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대나무 잎새를 갖다가 척척 긁어서는 그것으로 발을 씻더니 그때야 걸음이 걸 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말입니다.

바꾸려고 못 바뀌요. 아주 극난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공부한 사람을 쫓고만 지나갔어도 그거는 좀 사해져요. 정말이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벌써 그 사람은 랜잡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무주상 보시를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누구나가 다 그럴 수가 있다는 점, 더하고 덜함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죠. 그리고 축생들은 인간으로 등장을 해야, 한번 인간으로 굴러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닭도 얼마나 영악한지요, 신발을 알아봐요. 이 사람의 신발인지 저 사람의 신발인지, 나 별것 다 봤어요, 하여튼. (대중 웃음) 닭을 그냥 쫓고 썰리 가지로다가

슨, 말이 길어서 그건... 지금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신도1(남) 예. 큰스님 누가 그랬어요? 신도1(남) 제가 그랬습니다. 큰스님 그럼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신도1(남) 같이, 똑같이 불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 분명히 이견 작고 이견 큼니다.

신도1(남) 그런데 큰 거고 작은 거고 없습니까. 큰스님 그런데 물질로 볼 때는 이게 작고 크고 가 있죠. 그러나 마음을 깨닫고 불을 쬐면 이것은 등이 아니죠. 등이 아니예요. 이것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냥 등불은 비바람이 치면 꺼지는 불이거든요. 어떤 것이 같습니까? 신도1(남) 그 마음이에요. 큰스님 네? 신도1(남) 마음이라고요.

신도1(남)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안 한다면 빠투로 나가죠. 마음의 불이라는 건, 불씨라는 건 온몸 천동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마음의 불과, 그냥 등불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등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나라." 하구요.

이 중에도 마음의 불이 꺼져서 지금도 뿜뿜 밝히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쬐는데 얼마나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이 마음의 촛불, 마음으로 그렇게 쬐어야 되겠죠. 자기 주인공은 꼭 잊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을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허허... 감 사합니다.

사회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노구를 무릅쓰고 이렇게 저비의 법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스님 감사하긴요, 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감사하죠. 모두가 감사하죠. 감사 안 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 하나 쬐는데 얼마나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그게 외려 도둑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외려, 나 편안하고 식구들 편안하고, 꾸러 다니지 않고 헛발치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평생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냥 발버둥이를 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자꾸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발버둥이 치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 산 보고 구경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걸어가듯... 요다음에는 윤회에 대해서 애걸 좀 할까요? 아귀 축생, 그걸 거론만 하고선 애걸 못해서 시원치 못 한데요.

하어튼 나는 경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안팎을 보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거, 사는 사람들도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 말씀해 놓으신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 진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저 여러분과도 요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끔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요다음에도 또 못 만납니다. 지금 만날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로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만나야죠. 나뉘어 아님니다. 전체! 우리가 가고 오면서 나무하고도 같이 만나고 또 좋은 돌이 있으면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돌 속에서 사람 나오는 거 모르시죠? 허허...

다, 그냥 이런 걸 덮어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오는데, 숯가마가 있으니까 그 숯가마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지 누가 그런 줄 알았나?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 가방을 착 채요. 내가 무슨 돈을, 풀을 봐도 돈 가진 사람 같지 않을 텐데, 거지인데 말이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말이예요,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추욱, 툼 툼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그 사람네를 다 쫓았죠. 나오니까 기겁을 해서 달아나갔죠.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서 인사를 받았는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나는 출창 산에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이, 또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만 그냥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 그게 참 많아요. 모두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해요. 모두가 살아 있어요. 목신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목신이든지 석신이든지 해신이든지 산신이든지 모두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진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 찰나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 우주들 다 주고

때리고 이런 사람의 신발에는 오줌을 싸 놔요. (대중 웃음) 그리고 아주 그냥 모이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발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추운데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그 주인이 나오면 얼른 비켜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못된 거보다 낫지요. 그래서 그 닭이 얼마나 됐기에 저러나 했더니 닭이 180번이나 죽어서 또 닭으로 나오고 닭으로 나오고 그래서, 180번이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닭은 제왕 그냥 사람으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 생 찰나에 이렇게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고 그대로 아주 천진하게 잘 사신다면 그거는 '왕' 죠, 시셋말로.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고만두겠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등을 쬐 놓죠? 불을 다 쬐서 이렇게 모두 등을 달아 놓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쬐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요런 집사에게 기름 조금 해서 심지 만들어서 이렇게 쬐는 사람도 많았었지요. 그렇다면 집사에 심지로 쬐 놓은 그 불하고 그냥 이런 통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쬐면하고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신도1(남) 같습니다. 큰스님 고정되지 않다고 만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작고 큼이 없이 똑같은 똑같은데, 똑같다면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까닭에 똑같다고 하느냐 하는 이유요. 그런데 그 이유인 즉

佛記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운누리에

## 한국 대승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봉진**  
총무원장 **윤화봉**

원로위원장 관능	서울시총무원장 혜정
총무국장 윤고	교육원장 등정
경남총무원장 등정	감사부장 약산
경북총무원장 지영	감사사사우
부산시총무원장 윤고	감사사대진
울산시총무원장 혜관	호계부장 법경
강원도총무원장 해운	비구니원장 덕산
광주시총무원장 법장	비구니총무 용주
경기도총무원장 총해	비구니재무국장 덕심

■ 총본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05번지 TEL 055)521-1236, H·P 011-9528-4026  
■ 총무원: TEL 055)351-0562, H·P 010-8331-0320

### 전통범음법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총무원·범음, 법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법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송주: 도량석, 종송 등  
◆예경: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관공: 삼보통정,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오양, 목탁
- 전문과정(4개월)**  
◆시연, 대령, 관음, 응호계(신종작법104원), 지장정,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공영만,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고급과정(6개월)**  
◆바라춤: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회의제바라  
◆나비춤: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사물: 태평, 북, 광쇠, 호적(대평소), 전통의식작법  
◆특강: 패불이온 종사이온, 종사영만, 점의의식, 시달림(간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 입학식 및 개강일시**  
◆입학식: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개강: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수업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강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강의장소**: 경북교구 총무원 설법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총무원에서 교부)
- 접수처**: 한국불교 대교종 경북교구 총무원 (경북 경산시 외촌면 동강 2리 265)
- 접수기간**: 상시모집
- 문의처**: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대교종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법패 교육원

###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헌 불전함

움직이거나 던지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